

오순절 후 열세 번째 주일 예배
THE WORSHIP SERVICE OF 13TH SUNDAY AFTER PENTECOST

주후 2022년 9월 4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214 장 “나 주의 도움 받고자” (통일 349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36 번 시편 90 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643 장 “세번 아멘” (통일 555)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윤영록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출애굽기(Exodus) 13:1-16	임필재 집사
찬 양 Anthem	“이 믿음 더욱 굳세라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” (Consecrate to the Lord Every Firstborn Male)	김일선 목사
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	“나의 안에 거하라”	다같이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17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통일 353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찬 송 Hymn	213 장 “나의 생명 드리니” (통일 348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“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”고

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,

우리는 눈 앞에 직면한 현실과 문제를 더 크게 여겼으며,

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.

그래서,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,

정작 믿음과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곤 했습니다.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.”

“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”라는 말씀을

기억하며,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,

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.

그리하여, 이제부터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,

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요 14:1, 롬 14:23)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, ‘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’ 하시니라.” (개역개정 **출13:1-2**)

“The LORD said to Moses, ‘Consecrate to me every firstborn male. The first offspring of every womb among the Israelites belongs to me, whether man or animal.’” (NIV **Exodus 13:1-2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9/4 (주일)	9/5 (월)	9/6 (화)	9/7 (수)	9/8 (목)	9/9 (금)	9/10 (토)
본문	삼상28 고전9 겔7 시45	삼상29,30 고전10 겔8 시46,47	삼상31 고전11 겔9 시48	삼하1 고전12 겔10 시49	삼하2 고전13 겔11 시50	삼하3 고전14 겔12 시51	삼하4,5 고전15 겔13 시52-54

수/요/ 찬/양/집/회 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찬양집회 (9/7수 오후7:30)	“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”(딤후2:1-10)
토요 새벽기도회(9/10토 오전6:30)	“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”(시93:1-5)

지난 주일(8/28) 말씀 – 정재홍 목사

“마지막 때와 우리의 신앙”(벧전 4:7-11)

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세 권의 책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. 여기에서 세 권의 책이란 (바로) 과거라는 책과 현재라는 책과 미래라는 책인데,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장 헤아릴 수는 없지만,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기에, 우리는 그 때를 분명히 알고 또한 그 때를 제대로 분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

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메시지도 (바로) 이것입니다. 그러면,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에,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? 또한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견뎌갈 수 있겠습니까?

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, 1)먼저,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(벧전4:7). 여기에서 “정신을 차린다”는 것은 곧 우리가 깨끗한 정신과, 올바른 정신과, 하나님을 아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. 2)그 다음으로,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(벧전4:8). 왜냐하면,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, 비로소 허다한 죄가 덮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3)마지막으로,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(벧전4:9-10). 특히 청지기란? 주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에, 청지기로 부름 받은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,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.

그러므로,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에,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신앙과 바른 삶이 드러나도록, 참된 나눔과, 희생과, 공의와, 섬김과, 근면과, 신앙으로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